

본 연구는 1990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발 간 사

이번에 교수논문집, 제 20 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대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학문의 공동체(Akademische Gemeinschaft)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 교육할 뿐만 아니라 이 지적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퍼킨스(James Perkins)는 대학의 기능을 3가지로 요약하여 지식의 획득, 지식의 전달, 그리고 지식의 적용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연구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수 논문집이 우리 대학의 제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기본적 사명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다른 고유하고도 독특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대학이 기독교 대학인 것은 단순히 교회에 의해 설립, 운영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독교학문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우리 대학교의 기독교학문운동은 우리학교의 고유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고신대학교는 단순히 학문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학문의 공동체이자 신앙이 공동체인 고신대학교는 기독교적 학문 연구를 고유한 사명으로 여길 뿐 만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 수월성을 추구합니다. 이 점을 위하여 앞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수와 학생제군도 우리 대학이 보다 우수한 기독교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까지는 '기독교학문 연구회'를 두고 있었으나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교무회의에서는 「기독교 학문부」설치를 결의하였고, 이 기독교 학문부가 고신대학교의 모든 연구활동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적 학문운동을 실행해 가지 위한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독교적 학문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피히테는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학문의 자유를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교수논문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육고를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교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논문집이 고신대학교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등 대학의 기본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고신대학교 총장 이 근 삼

신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논구

— 신의 존재증명을 중심으로 —

A study to proofs of God's exestence

김 성 린 교수*

목 차

- 서 론
- I. 존재론적 증명
- II. 우주론적 증명
- III. 목적론적 증명
- IV. 진리의 일의성에 의한 증명
- V. 신 경험에 의한 증명
- VI. 과학적 증명
- 결 론

서 론

“신앙에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지식을 버려야만 했다.”는 Kant의 언명 속에는 신앙의 궁극적 대상인 신의 객관적 실재성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실천적으로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본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Kant에 의하면 인식은 감성과 오성의 통합에서 성립이 되는데 이때 감성은 직관 능력이고 오성은 사유 능력이다. 감성에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오성이 사유할 수 있다. 고로 내용없는 사유는 공허하며 개념없는 직관은 맹목이 된다.⁽¹⁾

인간에게는 감성과 오성의외에도 이성이 있다. 이성은 원리의 능력(Vermägen der Prinzipien)이다. 원리란 '개념에 의한 종합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원리아래 포함되는 바의 모든것은⁽²⁾ 인식되는 전제가 된다. 오성이 카테고리를 매개로 하여 현상을 통일하는 능력이라면 이성은 원리 아래서 오성의 카테고리를 통일하는 능력이다 고로 이성은 감성적 경험의 대상과 관계할 수가 없고 다만 오성에만 관계하여 그 다양한 표상을 통일한다. 오성은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카테고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대하여 이성은 오성의 개념을 초경험적인 영역에 까지 확대시

* 신학과 교수, 철학박사
(1) Kant, K. d. r. v. S. B. 75
(2) Kant, K. d. r. v. S. A. 299. B. 356

김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을 피한다 그리하여 이성 통일의 표상은 오성적 통일의 개념과 구별되는 '순수이성개념' 또는 선험적 이념(transzendente Idee)'이라고 불려진다.

이렇게 볼 때 이념이란 주어진 피제약자에 대해 제약의 총체성(Totalität)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무제약자(das Unbedingte)의 개념이 된다.

무제약자로서의 이념에는 '완전한 주관의 이념' '제제약의 완전한 계열의 이념' '가능한 것의 완전한 총괄의 이념'⁽³⁾으로 영혼과 세계(자유)와 신의 세 이념이 있다.

이 세 이념은 이성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과해진 것(aubgegeben)이기 때문에 '이성에 있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개념'이며 따라서 '선험적(주관적) 실재성을 가지긴 하나, 이념에 대응하는 대상의 객관적 실재성은 증명할 수 없다.

순수이성비판에서 Kant는 감성적 직관에 수용되지 않는 것은 오성의 사유나 이성의 추리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이념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가 직관되어야만 하는데 신은 이념이기 때문에 감성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실천이성의 영역에서는 도덕이 존재한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자유와 영혼과 신의 존재를 요청의 개념을 매개로 하여 차례로 증명한다.

인간에게는 선험적으로 도덕이 존재한다. 도덕이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행위해야 한다 라고 명령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이러한 도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지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의 존재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덕의 존재 사실을 통하여 의지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자유는 도덕의 존재 근거가 되고 도덕은 자유의 인식 근거가 된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의 실천이성은 최고선(das höchste gut)의 실현을 추구하여 마지않는다. 최고선은 덕과 행복이 완전한 일치에서 성립이 된다. 덕은 인간의 의지가 도덕과 완전히 일치되는 데서 실현이 되는데 인간의 의지는 감성적 충동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최고선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선의 실현은 인간에게 부과되어 있는 실천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무한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불멸해야 한다.

인간이 제아무리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덕과 행복과 완전한 일치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의 지배자인 완전하고도 예지적인 신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Kant는 도덕의 존재사실을 근거로 하여 자유의 존재를 요청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는 영혼과 최고선의 최종적인 보증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Kant에 있어서 새로운 형이상학은 주체의 형이상학, 의지의 형이상학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선험적으로 존재해 있는 도덕의 요구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행위할 때만 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주체적으로 체험은 되지만 대상적, 따라서 '학'적 경험은 될 수 없다.

우리의 내부에서 체험한 신은 객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Müller는 Kant의 실천적 형이상학에 대하여 비판한다.

"만일 '학'이라는 것이 객체에 대한 '학', 다시 말해서 현상하는 객체의 연관과 통일,

(3) Kant, K. d. r. v. B. d IV. S. 330

순서에 관한 올바른 판단 형식이라 한다면 이 형이상학은 아무런 '학'도 아니다. (4)

Kant에 있어서 신의 실재성에 대한 '지'가 객관지(客觀知)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고 '지'의 대상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Kant이전의 근대철학은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리론은 경험에 선행하는 이성적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합리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믿은 나머지 독단적 형이상학의 체계를 수립한데 대하여 경험론은 인식의 기원을 경험적인 것에 한정된 결과, 일체의 형이상학을 부정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회의론에 빠지게 되었다.

Kant는 이러한 대립의 조정과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자연과학의 학적 근거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초를 정립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초월을 갖지않는 형이상학과 객체를 갖지 않는 형이상학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Kant 자신이 정의한 '학'으로서의 형이상학과 모순되는 것이다.

Kant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유와 실천과 신앙의 영역에서 대상적 신의 존재증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신앙의 신학적 자기해명은 신학자의 주관적 캐리그마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Heidegger역시 신에 관해서는 친목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기 원인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신에게 기도할 수도 없고 회생을 드릴 수도 없기때문에 결국 신학은 「사변적 신 인식」이 아니고 「인간의 현 존재의 실존양식」으로서의 신앙에 관한 학이 된다.

이러한 주장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사상은 인식의 기능과 한계를 감성과 경험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경험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 합리론의 입장에서 형이상학과 신학의 궁극의 대상인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I 경험론에서는 신관념을 포함하여 일체의 내재관념(innate ideas)을 부정한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능성으로서 가지고 태어난 신관념의 분석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존재론적 신증명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II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인과율과 이유 충족율에 근거하여 우주의 최종적인 존재의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우주론적 증명에 대하여 고찰 하겠다.

III 세계에는 일정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구성된 지적 고안물과 질서와 합목적성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목적론적 신 증명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IV 경험론에 의하면 진리는 다의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 되며 결국은 회의론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는 진리는 일의적이라는 Clark의 인식론에 따라서 진리의 특성과 존재론적 근거를 구명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

V 신은 영이며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신 경험이 가능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신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는 신 경험의 분석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논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논증하겠다.

VI 기술한 바의 우주론적 증명은 존재하는 것의 최초의 원인으로서 신의 존재를 추론한다.

(4) M. Müller, Existenzphilosophie in geistigen Leben der Gegenwart. P. 243.

우주가 무시무종하다면 이 증명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수십년 동안 우주를 관찰할수 있는 방법의 획기적 개선과 과학의 발전은 우주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시작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우주론적 증명에 대하여 보충 자료를 삼고자 한다.

이상의 신 존재증명의 고찰을 통하여 비록 기독교 유신론적 신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이상학적 최고의 실재자로서의 신의 존재 사실을 논리적으로 부정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유현상론과 허무주의와 회의론과 진리와 가치의 상대주의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 존재론적 증명

신 관념의 분석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거기에 속하는 본질로서의 신의 실재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Kant는 존재론적 증명(ontological argument)이라고 불렀다.

사상적으로는 Platon과 August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Anselmus와 Descartes에 의하여 형식이 갖추어졌고 Malcolm Hartshore Plantinga 등이 옹호한다.

Augustine은 로마서 1장 19-20의⁽⁵⁾ 교훈에 따라서 신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의 근본 개념중의 하나로 알로 이의 분석을 통하여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한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작용 즉, 사고 감정 의지안에서 영원 불가변 필연의 제진리를 발견하지만 때로 이 진리를 간과(看過)하고 무시하고 반항까지 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정신의 재판관이자 지도자로서 정신에 내재한다. 이러한 진리는 가변적이고 유한한 인간정신의 선물일수 없다. 아니 이 진리를 통해서 초인간적 초시간적 존재가 인간속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불완전한것 상대적인것 가운데서 완전한것 절대적인것에 접하게 됨으로써 신에 복착한다. 신은 불완전한 것이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서 인식되며 근원적 진리, 근원적 선으로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자 Platon이 말하는 전체의 전체다⁽⁶⁾

우리는 여기서 Augustine이 제일 원으로으로서의 신이 제진리를 정했다는 식으로 다시 말해서 인과적 추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연역(演繹)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에 내재하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기점으로하여 진리의 부여자가 되는 신의 존재를 입증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가변적인 정신에서 불가변적인 진리가 발견 되었다면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신은 최고의 존재다. 고로 진리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Anselmus도 Augustine과 동일한 맥락의 진리개념을 갖는다. 그에 의하면 진리란 존재의 적정(適正-Richtigkeit)이다. 이 적정은 존재가 神의 정신에 있는 자기의 원형(原型)과 일치 하는데서 성립된다. 진리는 정신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만 파악된다. 우리의 사유가 神의 관념 안에서 본질과 존재의 필연적인 관련을 간취(看取)할때 근원적 진리가

(5)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회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롬 1: 19.

(6)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高橋憲一 역. II. p. 74-75.

나타난다. 진리는 神의 원형안에 있지만 우리는 모상(模像)에 있어서 진리를 생각할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사고와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않고 일치되어 있었다. 근원적 진리와 근원적 선원형과 이념이 본래의 현실이다. 모든 존재와 인식은 이 현실에 의하여 지탱된다.

그는 최고 완전자라는 神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神의 존재와 神에게 귀속되어야하는 속성들을 증명하려고 기도한다.

神은 사유할수 있는 한에서 최고의 존재다. 神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생각한다고 해도 그가 神이다. 神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생각할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자 보다 관념 속에서 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

神은 생각할수 있는 최고의 존재다. 고로 神은 관념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존재해야만 한다.

그는 표현을 달리하여 말한다.

비존재를 생각할수 없는 존재는 비존재를 생각할수 있는 존재보다 더 위대하다. 神은 생각할수 있는한 최고의 존재다. 고로 神의 비존재는 생각할수 없다.

수도사 가우니론은 반박한다.

완전한 섬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섬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하여 Anselmus는 반박한다.

화가가 그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그림이 실재하지 않지만 화면에 그려지면 한층더 완전한 그림으로 존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완전한 섬이라는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될수없다. 神관념은 어떤 다른 관념과 비교할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 관념에서는 모든 완전성과 필연성이 영원히 내포된다. 여기에 반하여 완전한 섬이란 언제나 한정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Anselmus의 神존재 증명의 진수(眞髓)는 「모든 완전성을 자기안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것으로부터 존재적인 것으로 비약하는 추리가 아니다.

그가 염두(念頭)에 두고있는 神의 개념은 「그 안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러부분의 결합도 갖지 않는것」

언제나 어디서나 전체로서만 생각 할수있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없는 존재다.

이러한 완전자는 존재와 사고에 있어서 전체자며 존재와 본질 사고와 존재가 일치한다. Platon이 말하는 전체들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전체에 있어서 항상 선행하는 완전자다. 불완전한 것도 존재하는 마당에 완전한 것은 더욱 존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Descartes역시 神은 최고로 완전한 존재자(ens Summe perfectum)로 정의한다.⁽⁷⁾

그는 주장한다.

불완전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것을 유한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한한 것은 유한한 것의 부정으로 해석할수 없다. 무

(7) Descartes Meditation, III. 25.

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선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할수가 없다.

합리론자로서 Descartes는 생득적 神관념을 인정한다. 최고 완전자라는 관념이 무에서 생겨날수 없다. 최고 완전자의 관념이 다른 완전자의 관념과 결합하여 구성된다고 생각할수도 없다.

가령 어떤 관념이 다른 관념으로부터 생길수 있다해도 이것은 무한히 계속될수 없다. 결국에는 최초의 관념에 도달할수밖에 없다.⁽⁸⁾

그는 또 신의 존재가 신의 개념또는 본성에 필연적으로 속한다는 사실을 예를들어 설명한다.

직각의 내각의 크기가 3각형의 본질에 속하며 산의 개념에 골짜기가 필연적으로 속하는것과 같이 최고 완전자의 개념에는 존재도 필연적으로 속하게 된다. 최고 완전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되며 그것은 자기 모순이다.⁽⁹⁾

여기에 대하여 Kant는 비판한다.

이 증명은 논리적 술어와 실재적 술어의 구별을 무시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개념은 실재적 술어고 절대 완전자의 개념은 순수한 이성개념 즉 이념이다. 이성이 그러한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객관적 실재성이 증명된다고는 볼수없다.⁽¹⁰⁾

「최고 실제적 존재는 존재를 포함한다」라는 분석판단⁽¹¹⁾이 성립된다고 해도 그 실제성의 정립은 종합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명에서는 분석 판단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는데서 오류(誤謬)가 생겼다.

가능한 100Taler와 현실의 100Taler은 개념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100Taler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념적으로 증명될수 없다. 이와같이 최고 실제자라는 神의 개념으로부터 神의 존재를 이끌어 낼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순수사유의 대상인 神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식할수 있는 수단(직관적 대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神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근거는 없다.⁽¹²⁾

우리는 Kant의 이러한 비판이 일견 타당한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성이 있음을 본다.

첫째 신관념은 Kant가 생각한것 처럼 순수한 이성개념 즉 이념이 아니다.

그는 이념이라는 말을 Platon으로부터 빌려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의미하는 이념은 Planton의 이념과 차이가 있다.

물론 Platon에 있어서도 이념은 보편개념이었다. 그러나 이개념은 단순한 징표의 집합이 아니고 대상에 관계하기 때문에 통일적, 정신적, 직관적인 것으로서 보편타당성을 가

(8) Descartes, Ibid. III. 15.

(9) Descartes, Ibid. V. 7-10.

(10) Kant, K. d. r. V, S. B. 620.

(11) 판단에는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이 있다. 전자는 술어개념이 주어개념에 내포되는 판단으로서 선험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을수없고 주어개념을 설명할 다름이다. 후자는 술어개념이 주어개념에 내포되지 않는 판단으로서 일종의 확대판단이다. 이 판단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유효하지만, 필연성과 보편성이 없기때문에 악의 기초를 정립할 수 없다.

(12) Kant, K. d. r. v. S. B. 620

진다. 이념은 언제나 실체(實體)며 참 존재로서 물자체며 이상이자 원형이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존재가 이념에서 근원한다.

이념은 「실체화된 개념」이며 모든것의 원인이자 존재근거며 모상에 대하여 원상이며 최종의 목표이자 가티다. 이념중에서 최고의 이념은 선의 이념이며 그것은 神이다.⁽¹³⁾

그러나 Kant에 있어서 이념은 이성이 오성의 개념을 초경험적인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기하려는 이성개념 또는 선험적 이념이다.⁽¹⁴⁾ 그것은 「주어진 피제약자에 대한 제약의 총체성(Totalität)이기 때문에 피제약자의 총체의 근거를 포함하는 한무제약자(das unbedingte)의 개념이 된다.⁽¹⁵⁾

무제약자의 이념에는 「사유주관의 절대적 통일」 「현상의 세계의 절대적 통일」 「사유일반의 전대상의 절대적 통일」로서 영혼, 세계(지유), 신의 세 이념이 있다.

이 이념들은 이성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 과(Aufgegeben)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개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선험적(주관적) 실재성」⁽¹⁶⁾을 갖기는 하지만 이 이념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는 경험에 있어서 뿐만아니고 실천과 신앙에 있어서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Kant에 의하면 인식은 직관된 대상을 오성이 사유하는데서 성립된다. 오성은 사유기능이고 감성은 직관기능이며 이성은 추리기능이다. 감성에 주어지지 않는것을 오성이 사유할수 없고 오성이 사유하지 않으면 판단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오성개념을 마치 직관의 대상이나 되는것처럼 사유하는데서 선험적 오류추리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념 즉 신의 객관적 신재성을 증명할 대상도 방법도 없게된다.⁽¹⁷⁾

철학사적으로 살펴볼때 전통적 형이상학에서 단순한 神의 표상에서 출발하여 그 실재를 추론한 경우는 없다고 본다. 神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만물의 근거이자 불완전자를 생각하기 위하여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완전자며 모든 가능한 것의 총체⁽¹⁸⁾인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존재며 모든 존재자에 선재(先在)하며 모든 정신적인 활동에 선행하는 정신이며 「실재의 전」(Omnitudo realitatis)으로서 존재중의 존재다. 이것이 중세에는 「모든 존재는 참이다」(Omne ens est verum)라는 명제의 기초가 되었고 근세에 이르러서 「모든 참된것은 실재적이다」라는 말로 바뀌었던 것이다.⁽¹⁹⁾

Platon, Augustine Anselmus Descartes로 이어지는 합리론적 사상가에 있어서 神관념은 존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치되는 것이다.

Kant가 神관념을 단순한 표상으로 간주한것은 당시의 성행했던 경험론 특히 Hume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Bavink도 지적하듯이 사람의 정신에 내재하는 관념들이나 규범들 특히 神관념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생득관념이다. 이 관념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절대적

(13) Hirschberger, ibid . 9. 159-161

(14) Kant, K. d. r. v. S. A. 302. B. 359

(15) Kant, K. d. r. v. S. B. 379

(16) Kant, K. d. r. v. S. A. 339, B. 397.

(17) Kant, k. d. r. v. S. B. 620

(18) Hirschberger, Ibid. S. 297.

(19) Hirschberger, Ibid. s. 624.

진리 절대적 선, 절대적 미의 총체로서의 神의 존재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믿게되는 것이다.⁽²⁰⁾

존재론적 증명의 가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神관념을 가지며 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내적증거를 시인할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거역할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사실에 있는것이다.⁽²¹⁾

Plantinga도 같은 맥락(脈絡)에서 이 증명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神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최고의 위대성을 갖춘 최상의 존재로 정의(定義)된다. 실제의 세계는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神의 존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神은 존재해야만 한다.

Haeksema는 진술한다”이 논증은 우리가 神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神관념은 인간자신보다 무한히 위대하다. 고로 인간 안에서 생겨날수 없다. 그것은 다만 神자신에 기원(起源)을 가질수밖에 없다.⁽²²⁾

Thiesaen도 지적한바 있지만 이 증명에서 각별히 명심해야할것은 추상(抽象)적 개념을 통하여 神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연역(演繹)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神관념 자체가 神의 존재 증명에 내포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에 생득적으로 神관념이 내재한다. 이 내재관념의 현상적 분석을 통하여 神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II. 우주론적 증명

神의 존재가 신앙의 대상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한것은 Platon에서 비롯되었다.⁽²³⁾ 그가 비록 체계적으로 神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에서 神에게 나가는 두 길이 열려 있으니, 하나는 물리적 길이요 다른 하나는 변증법적 길이다.

물리적 길은 혼의 불멸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으로서 그 출발점은 운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운동에는 자동과 타동의 두종류가 있다. 타동은 결국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을수 없다. 자동은 논리적으로나 존재적으로 타동에 선행(先行)하기 때문에 세계에 운동이 있다는 사실은 자기운동의 하나 또는 몇가지 원천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운동하는것은 혼이다.⁽²⁴⁾ 고로 혼이 존재하며 물질보다 앞서있다. 혼은 선악중 하나에 속한다. 선한 혼에서는 질서있는 운동이 악한 혼에서는 무질서한 운동이 생긴다. 세계는 엄밀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운행된다. 고로 우주를 움직이는 혼들은 선한 혼들이다. 이들 혼들중에서 보편적이고도 확실한 운동이 요청하는 혼은 가장 완전하고도 선한혼이 아니면 않 된다.

神에게 나가는 다른 하나의 길은 변증법이다. 여기서는 전제에서 전제를 소급하여 마

(20) Bavink, The Doctrine of God, p. 73.

(21) Ibid, p. 73.

(22) Haeksema, Reformed Dogmatics, p. 45.

(23) Hirschkerger, Ibid, p 201.

(24) 회람인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살아있고 살아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혼이라고 생각한다.

침내 무전제 즉 존재의 구극의 근거에 도달한다. 이 구극의 존재는 모든 존재의 피안(彼岸)에 있으면서 힘과 가치에 있어서 월등하게 우수한다.

물리적 길을 통하여 도달한 神은 순수한 유신론적 신이아닌 기껏해서 세계내에 편재하여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를 건축한 세계영에 지나지 않았지만 변증법적 길을 통하여 비로서 일신론적 의미로서의 초월적인 神으로 나가게 된다.⁽²⁵⁾

神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증명한 철학자는 Aristoteles였다.

그는 Platon의 물리적 방법에 입각하여 운동의 문제를 철저하게 사유함으로써 神의 존재를 증명하였으며 중세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아니라 오늘날 우주론적 神 존재 증명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²⁶⁾

그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사고(思考)를 진행시킨다.

운동하고 있는 모든것은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것이다. 하나는 타자 자신이 다른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그것이 또다른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그것이 계속되는것과 다른 하나는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로서 이경우 움직이는 것이 그자체내에 최초로 움직이게 하는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제일의 동자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어떤것의 타자에 대한 의존성을 추구하고 무한하게 소급할수 없다. 무한후퇴(regressus in infinitum)를 타파하고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지않고 움직이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다. 이와같이하여 나타난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자 타자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않는자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자다. 이것은 순수현실태(純粹現實態)다.

이 논증에 깔려있는 근본사상은 인과율(因果律)이다. 모든 생성(生成)은 원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데서 발생한다.

즉, 현실적인것은 다른 현실적인것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현실태는 언제나 가능태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사상은 무한후퇴가 불가능하다는 신념(信念)이다.

인과의 연쇄(連鎖)가 무한하다는 것은 제일 원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원인이 없으면 중간원인도 없을것이고, 결국도 없을것이다.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있는 사물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제일의 부동의 동자(動者)는 성질상 먼저있는 존재다. 영원한 운동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먼저 있는것은 있을수없다. 그리하여 운동의 제일 원인은 모든것의 근거라는 성질을 띄게된다. “제일의 부동의 동자는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않되며 Platon에 있어서처럼 모든 파생(派生)적인것의 근거로서 이데아(idea)적 존재양식을 갖

(25) Platon이 신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자신의 내면적인 신념을 솔직하게 밝힐때는 신들이라고 하지않고 신이라고 말했다. Ibid, 201~203.

(26) Cosmological Argument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근세에 와서 Hume, Kant, Mill등에 의하여 증명함에 있어서 쓸모없는 공론(公論)으로 간주하는것은 옹당하다고는 할수없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개신교의 학자들도 이 논증이 神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효과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증명의 기원은 Platon, Aristoteles로 소급되며 Augustine, anselmus, Aquinas, Scotus, Desearthes, Spinoza, Leibniz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옹호되었다. Nash는 그의 전서 「Faith and Reason」에서 Craig는 그의 전서 「Apologetics」에서, Bavink는 그의 저서 「The Doctrine of God」에서 각각 우주론적 증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p. 30)

춘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운동에 있어서 본질상 앞서있는 것이 없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하여 Aristoteles의 운동에 의한 神의 존재증명은 Platon에 있어서처럼 변증법에 방법을 취하게 된다.

Thomas Aquinas(1225-1274)도 Aristoteles의 사고를 따라서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 제일원인(First Cause) 절대적 필연적 존재(Necessary Being) 개념에 기초하여 神의 존재를 증명했다.⁽²⁷⁾

운동의 인과계열에서 제일원인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람, 동물, 식물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그속에 개별적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왔다가가는 영혼일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체의 운동의 원인일 수 없다. 우주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절대적인 부동의 원동자가 요청(要請)된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질서(秩序)정연한 일련의 원인을 본다. 그 어떤 것은 자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어떤 것도 자기에게 존재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지위인 모든 것은 타자에 의하여 원인 지위인 것이다.

Aquinas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의 계열은 무한히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원인 지위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는 제일원인이 있어야 한다.

또 세계에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닌 가능적 존재가 있음을 본다. 이것들은 왔다가가는 존재며 존재하지 않게 될 존재다. 모든 존재가 다 가능적 존재가 될 수 없다.⁽²⁸⁾

모든 존재가 단순히 가능적 존재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한의 과거의 어느시점에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無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7) 세계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운동하며 또 다른 것들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피동(被動)의 관계에 계열(系烈)은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 이러한 계열에서 중간 원인(中間原因)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다만 제일원인의 도구(道具)로서 작용할 따름이다. Aquinas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일원인이 제시(提示)된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아무런 힘(타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도 가지지 못하는 무력(無力)한 원인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끄는 기관차가 없이는 뒤에 연결된 차량을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제 아무리 정교한 기어가 있다고 해도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 이치와 같다. Craig, Apologetics, p. 63.

(28) Aquinas는 논증이 Aristoteles와 같은 사상에 근거하지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Aristoteles에 있어서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생성소멸(生成消滅)은 개별적인 존재에만 해당이 되며 보편적인 종(種)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종의 발생 즉 진화(進化)사상이 없다. 질료(質料)와 형상(形相)이 영원한 것처럼 인간도 영원하다(개별적 인간이 아니고 보편적 인간) 그가 세계를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료와 형상외에도 운동의 영원성의 이론(자연학, 8권 1장)에 근거한다. 부종의 동자는 자기 원인이며 순수 현실태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에 내재해야만 한다. 동시에 운동의 종말로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운동뒤에 남은 별개의 현실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머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그러나 그가 영원하다고 말할 때 무시간(無時間)을 의미하지 않고 한계가 없는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으로서의 영원이다. 여기에 대하여 참 영원은 그에게 있어서도 무시간이다. Hirschberger, Ibid, S. 278-279.

모든 존재가 가능적 존재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어떤 존재 또는 존재들은 필연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Aquinas는 실제로 천체들, 천사들 심지어 물질까지 포함하여 많은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한다.⁽²⁹⁾

그렇다고 한다면 현존하는 필연적 존재들은 그 필연성을 어디로부터 획득했겠는가? 여기서 그는 사물의 본질(essence)과 실존(existence)을 구별한다. 본질은 어떤 사물이 그것이 되기 위하여 소유해야 하는 일련의 성질들이다. 사람의 본질은 이성적 동물성(rational animal)에 있다.

이 요소(要素)를 결하면 사람이 아니다. 어떤 존재가 그 자체에 있어서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본질과 실존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존재로부터 본질을 취하는 실존의 무한후퇴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그 자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인 제일존재(First Being)가 있어야 한다.⁽³⁰⁾

Nash는 우주론적 증명의 기본개념인 제일원인(First cause)이라는 용어(用語)의 모호성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환기한다.

신이 현상의 계열을 시작한 최초의 원인이라고 쳐도, 그 神이 세계를 시작(창조)해놓고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세계를 시작한 제일 원인이 있으며, 그것은 神이라는 이 논증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神이 영원하며 완전한 神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Anselmus는 神은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God is that being than which a greater being cannot be conceived)라고 말함으로써 神의 완전성을 옹호했다. 그러나 Kant가 지적한바 처럼 완전성의 개념은 논리적 사유를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주론적 증명이 제일 원인으로서의 神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해도 그 神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神이 아니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또 제일원인이 하나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계의 인과계열은 너무나 복잡하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원인의 결과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허다하지 않는가?

Nash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일 원인이라는 개념만으로서의 그 원인이 되는 神의 영원성, 완전성, 단일성을 알 수 없으며 다른 개념들, 말하자면 이유 충족을,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개념들로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神의 특별 계시의 책인 성경의 조명(照明)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³¹⁾

Taylor는 이유충족(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왜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믿음⁽³²⁾이라고 정의한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명이나 이유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이유를 묻게 된다.

(29) Craig, Apologetics, p. 65.

(30) Ibid p. 65

(31) Nash, Faith and Reason, p. 124-126.

(32) Richard Taylor, Metaphysics 2d, ed, p. 104.

Leibniz는 왜 어떤것이 있고 무가 있지않는가?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라고 묻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한 이유없이 어떤것도 일어날수 없기 때문에⁽³³⁾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주안에서는 발견될수 없다. 우주안에 있는 단순한 사건이나 사건들의 전체는 우연적인 것이며 존재하지 않게되기 때문에 사물의 선험적 원인들이나 과거의 우주의 상태나 현재의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가 비록 무한하다고 해도 영원한 우주의 존재의 충족이유는 우주안에서는 발견될수 없다. 따라서 우주의 존재이유는 우주밖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것은 충족율을 스스로가 내포(內包)하고 있는자, 자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가 되는자, 그리고 우주의 존재이유가 되는자라야만 한다. 그러한 자는 神뿐이다. 그의 존재는 오직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될수 있다. 神은 형이상학적으로 필요 불가결의 존재다.⁽³⁴⁾ Nash는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개념을 통하여 神의 존재를 논증한다.

우연한 존재란 자기존재를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존재다. 어떤 존재 A가 다른 존재B에 의존한다면 다른 존재 B의 비존재는 어떤 존재 A의 비존재를 동반하게 될것이다.

우연적 존재의 비존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자기 충족성이 결여되어 있기때문에 자기 존재의 이유나 근거가 될수없다.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서 존재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연적 존재는 존재할수 없다.

인간을 포함하여 세계내에 있는 모든 존재는 우연적 존재로서 그 존재 근거를 자신안에 갖고있지 않다.

필연적 존재가 있다면 우연적 존재를 보충할것이다. 우연적 존재는 비존재가 가능하다면 필연적 존재는 비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적 존재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 필연적 존재는 존재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하지 않기때문에 자기 원인자다.

필연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존재하지 않게될 때가 없을것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다.

우리는 세계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연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세계 자체도 우연한 것이겠는나? 그렇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부분이 우연적인 것이라면 그 총화(總和)도 우연적인 것이기에

그렇다면 우연적인 존재 전체의 충족율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두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우연적 존재를 통하여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우연적인 존재는 다른 우연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되며 다른 우연적인 존재 또한 다른 우연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존관계는 무한히 계속될수 없다.

둘째로 우연적인 존재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존한다. 이 경우 세계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존하게 된다. 이 다른 존재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혹자는 물을 것이다. 필연적인 존재의 이유 충족율은 무엇인가? 라고

(33) Leibniz, Nature and Grace, p. 527.

(34) Craig, Apologetics, p. 66.

Nash는 그렇게 묻는자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용어(用語)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자 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필연적인 존재란 그 자체에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갖고있는 자기 원인자(self caused)다. 그는 비존재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존재할수밖에 없는자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않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필연적 존재가 될수없다.

Bavink는 우주론적 증명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전개(展開)되어 왔지만 결국은 경험의 사실에서 경험을 초월하는 神의 존재를 추론(推論)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운동하고 있는 것에서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것을 운동하게 하는자를 (Aristotels)
- (2)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자를 (Johon Damscus)
- (3) 상대적 원인자에서 절대적 원인자를 (Boethius Anselmus)
- (4) 우연적 존재에서 필연적 존재자를 (Richard Viet)
- (5) 이차적 원인에서 최초의 원인을 (Aquinas)
- (6) 상대적 존재에서 절대적 존재를 (Spinoza Hegel Hartmann, Scholton)
- (7) 모든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다높은 神의 능력을(Lotze) 각각 연역한다.⁽³⁵⁾

칸트는 우주론적 증명이 경험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을 추구하여 마침내 神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이성의 자연적 추리법(推理法)에 적합한것 같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검토해보면 존재론적 증명 못지않게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추론의 대전제는 경험일반(經驗一般)에서 필연적인 것의 현존재의 추론이 포함되며 소전제는 경험을 포함한다. 그런데 경험은 절대로 필연적인 존재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명시(明示)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경험을 초월하여 절대로 필연적인 존재는 최고 실제자의 개념에서만 발견된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최고 실제자의 이상(理想)은 이성의 통제적(統制的) 원리에 근거하는 이념(理念)일뿐 현상계에서 인과율을 통하여 증명할수 있는 실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성(構成)적 원리를 통하여 그것을 표상(表象)하고 그 통일을 실체적(Hypostatish)으로 사용하는데서 가상(假象)이 성립된다.⁽³⁶⁾

이와같이하여 Kant는 인과율에 근거한 우주론적 증명에 의하여 증명된 神은 이성의 조작(操作)이 빚어낸 한갓 가상(假象)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도출(導出)해낸 제일 원인으로서는 필연적 존재자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모순(矛盾)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논증이 제일 원인의 내용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5) Bavink, The Doctrine of God. p. 68-69.

(36) Kant, K. d. r. v. B. S. 635.

Bavink가 지적 했듯이 이 논증에서 인과율의 무한후퇴가 불가능하며 절대적 우주의 원인으로서는 독자적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³⁷⁾

III. 목적론적 증명

여기서는 우주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목적의 부여자인 神의 존재를 추론한다.

「자연신학」의 저자인 William Paley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고안자(考案者)가 없으면 고안물이 없고 설계자가 없으면 설계도가 없고 선택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어떤것을 순서대로 배열(配列)할수 없이는 배열이 불가능하다. 부분에 대한 전체의 균형 목적에 대한 방법의 수중등이 모든것은 지성과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³⁸⁾

그는 시계(時計)의 예를들어 설명한다.

시계가 제작(製作)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을 알게할 목적으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예술품을 보고 그 예술품이 창작된 과정을 보지 않고서도 그것을 창작한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알수있는것과 같다. 혹자는 말한다. 물질에는 애초부터 질서가 있었으며 시계공이 법칙을 이용하여 시계를 제작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계공에게 지성(知性)이 없다면 물질에 기존하는 질서나 법칙이 시계를 제작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또 혹자는 말한다.

지금 있는 시계는 그전에 있던 시계를 본따서 만들어졌고 그전의 것은 또 그전의 것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이 관계가 무한히 계속된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무한의 계열의 시계들은 같은 고안물임을 입증한다. 비록 같은 고안물이 무수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안한자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우주를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현존 세계를 창조한 神이 존재 한다고 유추(類推)한다.⁽³⁹⁾

Paley의 목적론적 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감명을 준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논증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Kant는 목적론적 증명이 '가장 오래되고 명석하며 가장 상식과 합치하며⁽⁴⁰⁾ 합리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최고의 세계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여 확고부동의 신앙이 되게까지'한다⁽⁴¹⁾고 진술한다.

이성의 세계는 우리에게 다양성과 질서와 합목적성과 헤아릴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전개함으로써 세계내에는 도처에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위대한 지혜를 통하여 이룩된

질서의 명백한 표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합목적적 질서는 본래 이 세계의 사물에 고유(固有)한것이 아니고 단지 우연히 수반되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고로 만일 질서를 부여하는 이성적 원리가 존재함으로써 그 근거에 있는 이념에 따라서 선택되고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계는 이러한 질서를 간직할수 없을 것이다. 세계에는 지성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활동하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의 근거에 질서를 부여하는 神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⁴²⁾

그러나 Kant가 여기서 '최고의 세계 창조자'에 대한 신관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신앙을 의미할뿐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인격적 神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⁴³⁾

Nash는 이 논증은 유비추리⁽⁴⁴⁾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비록 우주와 인간의 고안물들 사이에 유사점이 발견 된다고 해도 다른 모든 면에서 양자가 동일 하다고 결론을 맺을수 없기 때문에 필연성과 명백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논증에서는 사람들이 유추(類推)를 기꺼이 받아들일때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세계는 사람의 지적 작품과 유사하다고 믿을때만 세계는 지적 존재로 말미암아 고안되고 만들어 졌다고 결론을 맺을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된 유사성에 누구나가 다 동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Hume은 말한다. 목적론자들이 세계와 인간의 지성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神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다른 유사성에 근거하면 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⁴⁵⁾

인간이 만든 것들과 세계가 유사하다는 입장을 버리고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a living organism)로 본다면 지적 조물주의 존재는 부정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Darwin이 진화론을 발표했을때 사람들은 지적인 존재를 전제하지않고도 질서있는 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받아드림으로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Nash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1) 넓은 의미에서 진화론이 진리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유신론이 거짓이 되는것은 아니다.

(2) 진화론은 넓은 의미에서 본 목적론과 논리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Tennant(1866~1957)는 넓은 의미에서의 목적론적 논증에 진화론을 포함시킨다. 좁

(42) Kant, k. d. r. v. S. A 624, B 652.

(43) Kant k. d. r. v. S. B 652.

(44) 유비 추리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결론을 추리하는 논증방법이다. 우주와 인간이 만든 집, 기계, 미술품 사이에는 참목적성, 지적인 고안등이 나타나있는데, 이 둘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인간이 만든 고안물은 지성의 산물이다. 우주도 지성의 산물이다. 고로 우주를 창조한 지적존재, 즉 神이 존재해야 한다.

(45) Hume은 그의 전서 「Dialogues concerning Nature Religion」에서 자연의 조물주(The author for nature)와 인간이 지성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으며 따라서 신의 존재 (The existence of a Deity)를 증명할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神(a Deity)은 진정한 의미에서 조물주로서의 神이 아니고 우주안에 작용하는 일종의 생명유기체(a living organism)로서 우주의 진화과정에서 작용하는 생명력으로 보았으며 19세기 중엽의 진화론자 Charles Dawin 역시 자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구상(構想)을 지적인 창조자에 호소하지 않고 진화론이라는 가설(假說)로 설명하려 했다. William L. Rawe, philosophey of Religion : An Introduetion (Enciro, Calif : Dickenson, 1978) p. 54.

(37) Bavink, The Doctrine of God p. 70.

(38) Paley, Natural Theology, pp. 8-9.

(39) Ibid. p. 13.

(40) Kant, k. d. r. v. S. B. 651. A. 652.

(41) Kant, k. d. r. v. S. B. 652, A. 624.

은 의미에서의 목적론적 논증에서는 특별한 대상에 나타나 있는 지적인 고안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비하여 광의의 목적론적 논증에서는 일반적 자연 법칙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는 자연의 물질적 성질뿐만 아니고 추상력 사고력 도덕의식 자아의식등 인간의 정신기능 까지도 광의의 목적론적 논증에 포함하여 설명한다.⁽⁴⁶⁾

혹자는 광의의 목적론적 논증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은 우주전체에 대해서는 알수없기 때문에 우주에 대하여 알고있는 적은 부분의 지식을 통하여 거기서 나타나있는 지적 구상을 아는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알수없는 우주에 대한 보다 많은 부분은 어떤 모양이겠는가? 혼돈이 우주의 보다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광의의 목적론자들이 우주의 적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고안들을 전체에 적용을 시킴으로서 우주 전체에 조화와 목적과 질서가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Nash는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반박한다.

전체로서의 우주에 대한 인간의 무지가 문제시 되는것은 목적론적 논증의 입장을 연역적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한한다.

연역추리는 결론이 전제보다 많은 것을 진술하려 할때만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우주에 대한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우주 전체에 대하여 질서와 지적구상을 주장하는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논증에서는 신의 존재를 연역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알거못하는 보다 넓은 우주에는 혼돈(混沌)이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이미 알고있는 세계의 특성인 질서의 개념을 미지(未知)의 영역의 세계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니지 않는다.⁽⁴⁷⁾

Bavink는 목적론적 논증을 옹호하여 다음과같이 진술한다.

이 논증이 비록 Kant가 주장하는 바와같이⁽⁴⁸⁾ 세계 창조자가 아니고 세계 건축자의 존재가 증명 되었다고 해도 이 논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논증에서 유일의 지적 존재인 창조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세계를 조성(造成)한 다수의 신적 존재가 공존(共存)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 될것이다. 질료를 창조하지 않은자(또는 자들)가 어떻게 세계에 형상을 부여하고 조성할수 있는가? 어떻게 우주의 제일 원인이 다수일수 있는가?

우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봐서 최고의 실재자가 존재하는 것과 그가 정신의 소유자임을 알수가 있다.⁽⁴⁹⁾

목적론적논증 역시 다른 논증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증거할수는 없다고 본다.

(46) Linwood Urbam은 넓은 의미의 목적론적 논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In summary, the argument maintain that the natural order not only makes Human survival possible but also supports and fosters the moral and spiritual values of intelligant beings, and this is the kind of universe one would expect in wise, benevolent, and powerful deity to have designed.

Since the focus of the argument is not on the small-scale phenomeron cited by paley but on large-scale phenomenon of the evolutionary process itself, it has be come known as the wider The theological argument (Linwood Urbam A. short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p. 176.)

(47) Nash, Faith and Reason. p. 139.

(48) Kant, k. d. r. v. S. B. 655.

(49) Bavink. The Doctvine of God. p. 7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논증의 기본논리는 유비추리다. 유비추리는 양자간의 유사점을 인정할때만 합이점에 도달할수 있다. 결국 이 논증은 어떤 관점에서 인간과 세계를 보는가? 즉 세계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에서 볼때 인간을 포함하여 피조계에 나타나 있는 질서와 목적과 구상과 조화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지혜의 나타남이다. 이것을 믿는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IV. 진리의 일의성에 의한 증명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분석을 통하여 진리의 존재 근거로서의 神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기도는 Augustine이래 Aquinas, Clark, Nash, Platinga등 기독교적 합리론의 계열에 속한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다.

특히 Clark는 진리의 다의성(多義性)⁽⁵⁰⁾에 반대하며 진리의 일의성을 주장한다.

사상적으로 기독교적 합리론자 또는 기독교적 선협론자인 Clark에게 있어서 이성과 논리가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의 인식론에서는 논리와 이성이 동일시 될뿐만 아니라 본질적 실제성⁽⁵¹⁾을 갖는다.

논리 가운데 모순율(矛盾律-The law of contradiction)은 사유의 정확한 법칙으로서 진리성의 증명이 필요치않는 자명한 사유의 전제가 될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존재론적 근거를 가진 원리다.⁽⁵²⁾ (The laws of logic must be, not only the laws of thought, but the laws of reality as well)

이성의 법은 우주의 합리적인 질서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지식은 질서 있는 합리적인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이 없다면 우주는 비합리적인 것이 되며 결국 인식할 수 없게 될 것이다.⁽⁵³⁾ (If there were no reason, the universe would be unreasonable irrational and in the case it would not be understood)

그리하여 논리와 존재는 서로 주조적 연관성을 갖게되며 모순율과 모순없는 존재는 상호 침투되어 있다.

Clark에 의하면 모순율을 전제로하지 않고서는 어떤 뜻있는 말도 할 수 없다. 반대되는 의미의 언어가 동시에 같은뜻을 나타낼수 없기때문에

모순율의 거부는 지성적인 언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되어야 하는데 지성적인 언어는 논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순율의 거부는 불가능하게 된다.⁽⁵⁴⁾

(50) Sophist의 한 사람으로 Protagoras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주장함으로써 진리판단의 기준을 개인의 감각적 지각에 기인시킨 결과 진리는 상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다의적인 것이 되었다. 회의론자 Gorgias는 그의 저서 'On Nature or the non existent'에서 주장한다. Nothing exist, if anything did exist we could never know it : and if by charee we should come to know it, it would reman a secret because we could not communicate to other. Sahakian, History of philosophy, p. 27.

(51) 진리의 기원을 神에게 들때 논리의 정당한 사용을 통하여 인식된 진리는 일의성을 띠게된다고 clark는 주장한다.

(52) 김성린, Gorden Clark에 있어서 진리의 일의성 문제, 교수논문집 제9집. p. 28.

(53) The Philosopt of Golden, Clark. p. 97.

(54) Ibid. p. 97.

언어가 지성적이고도 뜻있는 것이 되려면 일의적(Universal meaning)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언어가 무한정한 의미를 갖는다면 모든 합리적인 사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떤것을 의미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하여 언어와 모순율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지며 존재와 사유에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Clark는 모순율을 전제로 하여 회의론을 반박한다. 저들은 절대적 진리의 존재와 인식을 부정한다. 저들의 이러한 주장이 진리라고 하자 그렇다면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자 그래도 역시 진리는 존재한다.

회의론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법칙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선험성을 부정함으로써 모순율을 범하고 있다.

Clark는 모순율을 사용하여 진리의 상대주의를 반박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대주의와 나가서 진리를 신-인의 만남(the Divine-human encounter)으로 이관(移管)시켜버리는 신정통주의(Neo-orthodoxy)도 반박한다.

Emil Brunner는 주장한다. 종교적 명제들은 그 자체로서는 진리도 거짓도 아니고 진리를 지시하는 것이다. "참된 언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지시한다(that true sentence point the way to God)고 말했다면 그는 회의론을 피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시자"는 진리가 아닐수도 있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진리를 계시(啓示)하는 결과가 된다. 거짓을 전파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를 부도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회의주의의 근원이 될것이다.

Clark는 모순율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 하나님도 모순율을 범할수 없다는

언표(言表)는 비판론자의 주장처럼 논리를 하나님보다 상위에 놓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모난 원」을 창조할 수 없다는 언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無에서 無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모난 원'이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lark에 의하면 이성(Reason)은 하나님의 속성(Reason is an attribute of God)으로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의 법칙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적 활동의 서술(敘述)로 간주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법칙의 부여자(the law-giver)인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로고스(Logos)며 논리(the Logic)며 말씀(the Word)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은 알수있다.⁽⁵⁵⁾

그는 논리와 진리의 일관성을 주장하여 마지않는다. 진리는 논리의 법칙을 전제하며 논리의 법칙은 진리를 정의한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며 진리는 전체이다."⁽⁵⁶⁾ (The real is the rational and the truth is the whole)

이때 현실이란 연관성이 없는 요소들의 우연한 집합이 아니다. 참 명제는 다른 모든 참 명제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진리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명제들을 상호 연관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이 존재할때 비로서 절대적인 진리의 인식이

(55) Gordon Clark, Revealed Religion (Christianity today, Decembor, 1865) p. 24.

(56)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39.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명제가 진리인 까닭은 하나님이 그 명제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명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Clark의 이러한 주장에는 하나님이 알고있는 명제와 인간이 논리적으로 파악한 명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발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여기에 진리의 일의성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 진리는 전체며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진리는 전체적 진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진리는 일의성을 필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Kant의 선험주의에 의하면 인식이란 감각적 소여(所興)에 오성(悟性)이 질서를 부여하는데서 성립된다. 그 결과 세계는 주관의 구성(構成)이 된다.

Clark는 Kant와는 달리 자연계를 단순한 주관의 구성물로 보지않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합리적 세계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알수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질서있는 세계 구조와 인간의 마음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성적인 인간의 정신구조는 합리적인 세계 질서와 유사성(類似性)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게된다.

Kant는 인간에게는 선험적(a priori)으로 직관과 범주(kategori)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Clark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시킴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은 이성적 존재로서 합리적 세계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성적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질수가 있는 것이다.⁽⁵⁷⁾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는것은 Aquinas에서 처럼 유비추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이 내재하는 신관념 때문이다. 이 신관념은 a priori하게 인간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식은 神으로부터 선험적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신자신에 대한 자기 지식과 인간의 神에 대한 지식 사이에는 단순한 유비성(類比性)을 넘어서 일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적 합리론의 입장에 서있는 Clark는 모든 경험론과 상대론과 회의론에 반대하고 절대적 진리의 존재와 그 인식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이 진리를 인식하였다면 진리는 일의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⁵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식의 궁극적 대상은 진리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Truth is immutable) 지금 진리인 것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미래에도 진리일 것이다.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명제(true proposition)를 가르친다.

Clark는 어떤 형태에서도 진리의 상대주의를 반대한다. 실용주의에서는 실용성에 따라

(57) Clark. christian View of Men and things p. 318.

(58)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51.

서 진리는 수시로 변한다고 가르친다. 그 주장이 진리라고 한다면 실용주의의 진리관도 언젠가는 변하게 될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리가 변하다고 하는 명제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고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영원해야 한다. (Truth is eternal)

진리가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될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피조세계가 다 소멸한다고 해도 진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진리 자체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하자 그래도 진리가 소멸한다는 명제 자체는 진리일 것이다.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원성을 확정하는 것이된다.

진리는 정신적인 것이다. (Truth is mental) 진리의 존재는 정신의 존재를 전제한다. 정신이 없으면 진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의 대상은 명제, 의미, 의의등인데 이것들은 정신의 소산이다. 벗이 나간 사람은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수 없다. 따라서 참 명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는 진리의 존재와 유물론적 인간관은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59)

유물론자들이 정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물질의 파생일뿐 정신 자체는 아니다. 저들은 논리적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사랑을 기계적 필연성의 결과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육체의 변화나 운동은 그 자체로서는 진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정신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진리가 없으면 유물론도 진리가 될수없다.

유물론 자체가 이성적 사유의 결과이지 육체적 운동이나 변화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Clark는 말한다.

만일 진리나 명제나 사상이 물리적 운동의 결과라고 한다면 두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리적 운동은 서로 다르게 흘러간다. 두 사람이 같은 운동을 할수 없고 한 사람이 두번 같은 운동을 할수없다.

사고도 이와같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할수가 없고 의사를 전달할수도 없을 것이다. 과거를 현재로 돌이키는 것은 정신의 특성이지 육체의 특성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생각을 두번 할수가 있다고 한다면 진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진리가 동시에 두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

진리는 인간의 마음을 초월한다. 이 말은 진리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필연적인 진리 뿐만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도 안다. 이러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할수도 있다. 신념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를수도 있지만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또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다.

만일에 진리와 사람의 마음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진리는 영원할수도 불변할수도 없을

(59) Ibid. p. 162.

(60) Clark, christian View. pp. 119-320.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유한하고 변하기 쉽고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고로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야만 한다. 진리는 어떤 개인의 정신 뿐만아니고 모든 정신의 총체보다 더 월등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인간의 정신보다 더 고상한 정신이 있어야만 한다. 거기에 진리가 깃든다.

이러한 진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존재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진리의 근거는 어떤 가변적인 것이나 우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않된다.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하는 존재에 깃들여야 한다. 진리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정신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 하나님만 이러한 속성들을 지닌다. 인간이 진리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 속해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유추적 방법에 의하여 추리되는 다의(多義)적 진리가 아니고 인간에게 부여된 a priori한 신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의(一義)적인 진리가 된다. (61)

Plantinga는 Clakr의 이와같은 진리관은 Augustine에서 그 사상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진리는 神의 마음에 영원부터 있다는 Augustine의 주장 속에는 성질, 관계, 양상, 수 명제등 추상적 대상 전체는 영원히 존재하며 그 존재는 신에 의존해 있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神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실체와 신체에 대한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神안에 내재하는 영원한 진리는 인간 편에서의 지적 사색 활동과 무관할수가 없다. 마음의 존재가 명제 성립에 있어서 불가결(不可缺)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진리는 명제의 고유성(固有性)이기 때문에 진리는 또한 필연적으로 정신을 요구한다. 결국 진리는 정신적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명제가 정신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해도 참 명제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을 초월하는 다른 정신의 존재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는 인간 편에서의 지적인 사유 활동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있지만 한편 진리는 인간의 지적 사유 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62)

인간의 정신이 없더라도 사물들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神의 정신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본질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63)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리는 존재할 것이다. 진리는

(61) Ronald H. Nash. the philosophy of Gorden Clark.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8) p. 126.

(62) Plantinga, 'How to be an Anti-Realist'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982). p. 68.

(63) Thomas Aquinas, the Disputed Questions of truth, troms, Robert w. Mulligon. a : 11 Augustine, Aquinas, Clark, Nash, plantinga의 인식론이 전통적으로 합리주의(Rationalism)의 계열에 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Platon, Aristoteles, Descartes. Kant, Hegel과는 다른 입장에서 있다. 저들은 인간의-이성(Verunft) 기능을 감성기능보다 높이 평가하면서도 신의 지성에 의존시키는 점에서 합리주의자는 아니다. 저들이 인간의 정신에서 내재적인 신관념(innate idea of God을 인정하지만 Descartes. Kant처럼 주관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굳이 저들의 인식론적 입장을 분류한다면 기독교적 합리론 또는 기독교적 실험론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김성린, Gorden. Clark에 있어서 진리의 일의성 문제, 고신대 교수 논문집 제9집. pp. 25-40

神의 정신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神의 정신을 포함하여 정신이 없다면 진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가 정신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이들 기독교적 합리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진리가 영원하다면 영원불변한 정신으로서 神의 존재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V. 종교적 경험에 의한 증명

‘경험’(經驗)이라는 말을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知覺)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신경험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神은 순수한 영(a pure Spirit)이기 때문에 감각적 경험의대상이 될수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神경험에서 출발하고 성장하고 결실한다. 神경험에 접하지 않고서는 神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문제된다.

Yandell은 ‘神경험’을 ‘거룩한 경험’⁽⁶⁴⁾(numinous experience)이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그 속성을 진술한다.

첫째 이 경험의 주체는 적어도 어떤 속성을 가진 것과 같은 존재의 면전(面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둘째 이 경험의 주체는 그런 존재의 면전에 있다는데 대한 일정한 반응(反應)을 표시한다.

우리는 여기서 ‘듯하다’(seems)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적 경험은 어떤 위대하고도 거룩한 존재의 면전에 있는 것같은 느낌을 품고 그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반응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경위(敬畏)와 신뢰(信賴)가 동반되어야 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臨在)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하여 접근했다.

William Alston은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종교적 경험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확신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낀다. 우리는 어렵곳이나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지(感知)한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하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른 이웃에게 설교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더 효과있게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⁶⁵⁾

이러한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神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 논리적 타당성은 무엇인가?

Baillie는 주장한다.

우리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보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神을 직

접 경험함으로써 神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가 대상 X를 직접 경험했다면 대상 X는 존재한다.
2. 내가 神을 직접 경험했다.
3. 고로 神은 존재한다.

그는 여기서 대상 X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종교적 경험의 대상인 神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神의 존재를 유추(類推)한다.

Rowe는 보다 더 치밀하게 경험을 통한 神의 존재 증명을 기도한다.

1. 주관이 경험한 것이 X라면 그 경험이 미망(迷妄)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적극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X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
2. 神이 존재한다고 보이게 하는 주관적 경험을 했다.
3. 神이 존재한다고 보이게 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주관적 경험들이 미망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4. 神이 존재한다고 보이게 하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들은 실제적인 神경험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다.

Rowe도 Ballie처럼 대상에 관계없이 직접 경험한 것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allie와는 달리 “경험이 미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그는 또 때로 경험이 우리를 오도(誤導)한다고 해서 모든 비종교적 경험을 의심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많은 종교적 경험이 의아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모든 종교적 경험이 미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Broad가 지적하는 바처럼 제일항의 ‘단서’다.

이 ‘단서’를 무시하고 모든 종교적 경험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한다면 독아론(獨我論)의 오류를 범하게될 것이다.

사실 주관적 神경험에는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경험들이 허다하게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Rowe도 지적하듯이 모든 종교적 경험은 믿을 수 없는 미망으로 단정(斷定)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는 종교적 경험이 미망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있다.

물질적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의 경우 그 경험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있는 푸른 종이를 보았다고 하자 그가 본 것이 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立證)하려면 칼라사진을 찍든지 푸른 종이가 책상 위에 있었던 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면 된다.

종교적 경험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神경험을 한 사람이 그 경험의 대상인 神을 촬영할 수도 없고 주관적인 경험의 사실의 진실성을 제삼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Rowe는 종교적 경험과 비종교적 경험을 분리하여 별도로 취급할 것을 제의한다.

Martin 역시 그의 전서 「Religious Belief」⁽⁶⁶⁾에서 종교적 경험을 통한 神존재 증명 자

(64) Yandell, Christianity and philosophy, p. 9

(65) William Alston, Christian Experience and Christian Belief, p. 103.

(66) Charles B. Martin, Religious Belief.

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경험의 신빙성(信憑性)에 대하여서는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의 경험 중에는 사물의 진상(真相)을 왜곡(歪曲)할 경우가 허다히 있다. 물 속에 잠긴 노가 굽어 보인다면 평행선을 달리는 두가닥의 철길이 지평(地平)에서는 서로 합쳐 보인다.

경험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경험의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의 실재성(實在性)을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비종교적 경험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의 대상을 실증할 방법이 있지만 종교적 경험의 경우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미망으로 간주해야 된다.

Martin은 여기서 비종교적 경험은 유죄(有罪)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가 되는 반면 종교적 경험은 무죄가 입증되기까지는 유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rodes는 이와같이 Martin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反論)을 제기한다.

비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험을 신임할 수 없다면 신임할 수 없는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감각적 경험을 신임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경험에 호소하여 A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B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C에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이 무한하게 계속될 수는 없다. 결국 그 중에 어떤 경험은 진실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첫번째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첫번째 경험이 신빙성이 없다면 기타의 모든 경험은 더욱 더 믿을 수 없게 된다. 회오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경험이 미망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까지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⁶⁷⁾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직접 체험한 종교적인 경험은 성경에 기초(基礎)하여 그것이 미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⁶⁸⁾

유대 기독교의 神존재에 대한 믿음은 한결같이 직접적인 神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경험에만 神존재의 기초를 두는 것은 독아론이나 미망에 빠지기가 쉽다. 주관적인 경험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基準)이 있어야만 한다. 다른 여러가지 종류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방법의 도움도 필요로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啓示)의 책인 성경의 조명의 받아야 한다. 성경은 믿음과 생활의 요류없는 규범이라고 성경이 자증하고 있다. (답후 3:16)

(67) Peter Losin은 그의 저서 「Experience of God and the Principle of Credulity」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믿지 못하면 간접적인 경험의 진실성에 대한 어떤 검증(檢證)의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68) 모세는 80세때 호렙산에서 神경험을 한 후(출 3:2) 120세에 조부산에서 죽을때까지 하나님과 친히 음성으로 대화하였고(출 19:19) 처녀 마리아는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믿고 예수를 낳았으며 사도요한은 밧모섬에서 신경험을 하고 계시록을 기록했다. 기독교의 진리는 직접적인 神경험을 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에 직접적인 종교적 경험을 믿지 못하면 그 경험에 기초한 모든 증거도 믿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허망(虛妄)한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들은 마음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1서 1)된 직접 체험한 사람의 증거에 근거하는 확실한 진리다.

VI. 과학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에서 고찰한 바처럼 존재하는대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우주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인과율의 무한후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의 절대적 제일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논증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주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 우주의 시작과 끝이 없다면 우주의 절대적 제일 원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92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지(靜止)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29년 천문학자 Edwin Hubble에 의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계로부터 오는 빛의 색깔이 예산치보다 더 붉게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Hubble은 빛이 붉게 보이는 것은 우주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우주가 팽창(膨脹)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무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공기를 주입시키면 점이 모든 방향으로 크지는 것처럼 우주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時點)에 우주는 단순한 수학적 점(點)으로 수축(收縮)되어 있었던 것이 팽창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우주의 밀도(密度)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무한밀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무한밀도의 상태에서는 대폭발(大爆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대폭발’(the Big born)이다.⁽⁶⁹⁾

우리는 ‘무한밀도’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무’(Nothing)라는 말과 동일하다. ‘무한밀도’를 가진 어떤 대상도 우주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 Fed Hoyle는 말한다. 대폭발 모델은 물질이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요구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시점으로 왜축(倏縮)되기 때문이다.⁽⁷⁰⁾

우주기원에 대한 대폭발 이론을 거부한다면 다음 두가지 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69) 현대 양자(陽子) 이론의 발전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상호보환으로 우주의 공간이 영일때 밀도는 무한대가 되며 대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는 무한 밀도의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시간과 공간은 그사건(대폭발)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우주의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다. 대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라고 묻는것은 북극(北極)의 북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 ‘대폭발’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물을 수도 없다. ‘점우주(The Point Universe)는 공간에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에 있는 것이다. ‘대폭발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Graig는 대폭발이 우주의 공간의 한 지점(地點)을 기점(起點)하여 일어났고 그것을 가시(可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대폭발’이 일어난 것과 공간과 시간이 팽창하고 지속되는 모든 현상이 우주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할 수 없는 한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시점(觀點)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술한다. Richard “Will the Universe Expend Forever” p. 65.

(70) Fred Hoyle, Astronomy and Cosmology, p. 65.
대폭발 이론은 우주를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다. Einstein은 사신(私信)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초조하게 한다. ...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인다.
Walter Nerst는 ‘시간의 무한한 지속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의 기초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관찰된 사실이기 때문에 외면(外面)할수없는 것이다.

첫째는 정지상태(Steady state) 모델이고
둘째는 진동상태(The Oscillating) 모델이다.

정지상태 모델은 우주는 시작이 없고 동일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우주론이다.
이 이론이 제기된 이래 한번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65년 A. A. Penzias와 R. W. Wilson에 의하여 우주전체가 초단파 방사선을 배경(背景)으로 하여 에워 싸여져 있음을 밝혀졌는데 이것은 우주가 한때 아주 뜨거운 고밀도(高密度)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지상태 이론에서는 이러한 고밀도 상태가 있을 수 없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끝없는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Ivan King에 따르면 정지상태이론은 사물이 시간과 더불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가 관찰(觀察)에 의하여 명확하게 됨으로써 매장되었다.⁽⁷¹⁾

둘째로 진동상태 모델에서는 우주가 스프링처럼 영원부터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한때 이 이론이 시작이 없는 우주론을 확립해줄 것으로 특히 무신론적 과학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듯 했으나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부당성이 입증되었다.

첫째 이 이론은 단순히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Yale은 말한다.

비록 수학자가 우주는 진동하고 있다고 말해도 붕괴(崩壞)된 물질이 역동(逆動)하여 새로운 팽창상태로 되돌아가는 법칙은 알려져 있지않고 있다. 물리학은 이 모델이 대폭 발에서 시작하여 팽창하고 붕괴하고 그리고 끝맺는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이 이론에 동조하는 과학자들도 닫혀진 우주가 블랙홀(Black hole)로 유합(愈合)되었다가 되튀에서 본래의 상태로 퍼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고 말한다.⁽⁷²⁾

결국 진동모델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물리의 법칙이 수정되어야만 한다.

둘째 관찰의 결과 우주는 진동모델과 조화(調和)되지 않는다.

이 모델을 기초로하여서는 우주에 고르게 분포(分布)되어있는 물질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주가 수축하면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고르지 못한 물질의 분포상태가 된다. 우주가 수축상태에서 다시 팽창할 때 이 고르지 못한 분포에 다립질하여 고르게 하는 어떤 메카니즘도 알려진 바가 없다.

또 우주가 열려있는가(opened) 닫혀있는가(closed)에 대한 물음에서 이 이론은 관찰된 결과와 조화되지 않는다.

만일 우주가 닫혀있다면 일정한 지점에서 팽창이 중지되고 중력(重力)이 모든 것을 다시 끌어 당기게 된다. 반대로 우주가 열려있다면 팽창하는 힘이 중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팽창은 멈추지 않고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주의 밀도에서 찾아야한다. 밀도가 중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71) Ivan R. King The Universe Unfolding, p. 462.

(72) Duane dicus, The future of the Universe, p. 100.

우주 전체에 일평방미터에 평균 세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있으면 우주는 닫혀진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까지 관찰된 결과 적어도 십배 이상의 밀도가 되어야 우주는 닫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를 닫는데 필요로 하는 질량(質量)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새로운 질량들이 발견되었다.

빛을 발하지 않는 비발광(非發光) 물체의 무리가 은하계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질량은 은하 자체보다 배에서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발광 물질은 은하계와 연합하여 우주를 닫는데 필요로 하는 질량의 5%에서 10%를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은하의 집단들도 비발광체의 집단과 연합하여 우주를 닫는데 필요로 하는 질량의 절반을 더 첨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성미자(中性微子)가 우주를 닫는데 필요로 하는 밀도의 절반을 더 첨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과학적 측정에 의하면 우주를 닫을 수 있는 정도까지 우주의 밀도를 높이려면 중성미자가 25전자볼트에서 100전자볼트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높은 볼트의 중성미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⁷³⁾

결국 중성미자를 포함하여 새로 발견된 모든 질량을 다 포함하여 계산해도 우주를 닫는데 필요한 만큼의 밀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주는 중량-인력-의 영향을 벗어나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주는 '단 한번 발생한 것'⁽⁷⁴⁾(The Universe has happened only once)이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우리는 특별히 열역학(熱力學-thermodynamic)의 제이법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열은 닫혀진 체계안에서는 언제나 평형(平衡)상태를 유지할려 하는 성질이 있다.⁽⁷⁵⁾

이 법칙을 우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주는 공간적인 개념에서가 아닌 열역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닫혀진 체계다 이유는 모든 것이 우주 안에만 있고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이르는 동안 이 제이법칙이 작용하여 전우주에 열이 평형상태를 이루었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모든 체계는 망가질 것이다.

아니 우주 자체가 사멸(死滅)하게 될 것이다.

우주가 사멸하는데 두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주가 닫혀 있으면 뜨거워서 사멸할 것이다.⁽⁷⁶⁾

(73) F. W. Stecker and R. W. Brown. Astrophysical test for Radiative decay of Neutrious and Fundamental physics Implication. pp. 1-9.

(74) Allom Sandage and C. A. Tammann, Steps Foward the Hubble constant VII, p. 23.

(75) 밀폐된 빈병에 가스를 주입하면 가스가 콜고루 병안에서 퍼져 나가는 현상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 찬물과 뜨거운 물이 분리됨으로서 한 쪽은 일고 한 쪽은 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열역학제이법칙이다. 만일에 이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

(76) Tinsley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만일 우주의 물질의 평균 밀도가 보다 높다면 물체들의 상호 견인력이 팽창속도를 느리게 하여 팽창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는 수축되어 하나의 뜨거운 화구(火球)로 결집(結)될 것이다. 이 파국적인 대압축을 멈추게할 아무런 물리적 메카니즘도 알려진 바 없다. 우주의 밀도가 어느 한계에까지 상승되면 우주는 열 때문에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Bedtrice Tinsley, From Big Bang to Eternity. p. 103.

만일 우주가 닫혀진다면 우주는 수축되고 별들은 에너지를 획득함으로써 더 빨리 타오르게 되고 결국은 폭발하거나 증발하게 될 것이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서로 접근하기 때문에 블랙홀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키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스스로가 유합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모든 블랙홀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유합될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시공을 같이하는 것이 되며 거기로부터 우주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⁷⁷⁾

둘째 우주가 열려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Tinsley 박사는 열린 상태에서의 우주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만일 우주의 밀도가 낮아진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고 은하들은 가스를 별들에게 둘러보낼 것이고 별들은 소실될 것이다. 태양은 싸늘하게 죽은 잔해가 되어서 다른 죽은 별들 사이를 떠돌아 다닐 것이다.⁽⁷⁸⁾

10³⁰년 후는 우주의 별의 90%는 죽은 별이 될 것이고 9%는 붕괴된 은하에서 생겨난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고 1%는 주로 수소원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소립자는 그후 양자는 전자와 양전자로 붕괴됨으로써 해서 공간은 희소화된 가스로 채워지겠지만 너무나 얇아서 전자와 양전자의 거리는 현재의 은하계의 거리와 같게 될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10¹⁰⁰년에는 블랙홀 자체도 소산(消散)할 것으로 믿고 있다.

질량과 에너지가 결합하여 공간을 뒤틀리게 해서 '웜홀'(worm-hole)⁽⁷⁹⁾이 만들어지며 이 웜홀을 통하여 질량과 에너지가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블랙홀의 질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손실이 가속화되어 결국 블랙홀은 방사에너지와 소립자로 흩어진다.

그리하여 모든 블랙홀들은 완전히 소산되며 줄곧 팽창하는 우주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소립자와 방사에너지의 얇은 가스가 될 것이다.

열의 평형상태가 우주 전체에 퍼지게 되면 우주는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된다. 거기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주가 영원하다면 우주는 벌써 뜨거운 열로 사멸했거나 열의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옥스포드대학의 Hutlony Kenny는 말한다.

대폭발이론의 제안자는 비록 그가 무신론자라고 해도 물질세계가 무로부터 무로 말미암아 왔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⁸⁰⁾

Fred Hoyle는 말한다. 대폭발이론은 물질이 어디에서 왔으며 대폭발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다.⁽⁸¹⁾

오늘날 과학이 밝혀낸 것은 물질과 우주가 시작된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주의 존재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이 원인은 인과율을 초월하여 최초의 원인을 시작하게 한 자유로운 원인이자 아니면 안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77) Craig, Apologetics, p. 89.

(78) Tinsley, From Big Ban to Eternity. p. 105.

(79) black hole과 white hole의 연락로가 되는 벌레 구멍

(80) Anthony Kenny, The Five ways. p. 60

인격적 존재인 神의 존재를 전제로해서만 우주의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요한계시록 22:3)고 증거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

이상에서 신 존재증명에 대하여 기독교적 합리론의 입장에서 논구하였다.

기독교적 합리론은 기독교 유신론-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관-을 전제로 한 세계관이다.

여기서는 세계는 전지전능한 인격적인 신이 있어서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적 사고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창조주로서의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계시만으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기끝해야 존재의 궁극의 원인으로서는 형이상학적 절대자를 추리할 따름이다. Platon, Aristoteles, Descartes와 같은 합리론자들은 합리적 사고를 통하여 존재자의 존재로서 신의 존재를 추론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Augustine, Anselmus, Aquinas, Clark, Nask, Plantinga 등 기독교적 합리론주의의 계열에서 있는 학자들은 계시의 빛의 조명을 통하여 순수한 영으로서의 인격적 신의 존재를 믿고 증명하였던 것이다.

사상적으로 합리주의의 계열에 속하는 Kant가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 때 그 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서로 대립관계에 처해있던 합리론과 경험론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초를 정립하려 했던 Kant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기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서 세계는 주관의 구성물이 되었으며 신은 이성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인식은 경험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모든 인식이 경험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의 언명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대상은 초월적 존재론적 구조를 가르키는 「초월적」(transzendent)이라는 말은 「선험적」(transzendental)이란 말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인식능력으로서 주관적 정신의 선험적 법칙성인 것이다. 이 법칙성은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신은 이념이기 때문에 이 법칙성을 적용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일체의 초월적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념의 실재성의 증명은 실천이성의 영역으로 이월될 수 밖에 없다.

「실천이성비판」에서 도덕률의 존재사실을 기점으로 하여 자유의 존재를 요청하고 최고선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이의 최종 보증자로서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

를 요청 했지만, 그가 요청한 神은 초월적 神이 아닌 내재화된 神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만일 도덕률을 초월적 神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이 명령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자유가 성립된다고 언명 했다면 그의 도덕형이상학의 학적 근거는 끈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자율로 보고 자율은 이성의 자기입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율(神律)에 복종하는 것은 타율이며 따라서 자유의 침범으로 보았던 것이다.

Kant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형이상학의 기초를 정립하려 한 시도는 높이 평가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유한성과 무한성이 동시에 성립되는 모순을 범하게 된 것이다.

유한성은 모든 인식을 경험계에 한정시키려 하는데서, 무한성은 세계를 주관의 구성물로, 보려하는 인식주관주의와 도덕률을 이성의 자기 입법으로 보려하는데서 성립된다.

인간의 인식이 감성적 경험에 국한 된다는 Kant의 주장은 경험론의 입장에선 편협한 것이다. 인간의 사유 기능이 대상을 구성하고 행위 주체가 자기 입법에 자율적으로 복종하는데서 자율적 자유가 성립된다는 인식 주관주의와 도덕형이상학은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 서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원상과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의 반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의식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인간이 지적이고도 도덕적 존재임에는 변함이 없다. 고로 인간은 본성으로 율법의 의를 행해야 하며(롬 1 : 19-20)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Kant가 신을 감성적 경험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당하지만, 감성적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영'(pure Spirit)으로서 神의 존재를 합리적 사유의 대상과 실천적 복종의 대상과 신앙적 예배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신학은 물론 형이상학이 학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의 궁극적 대상인 神에 대한 객관지가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神의 존재가 증명되어야만 한다. 뿐만아니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전도된 가치체계를 바로 잡으며 회의론으로 부터 벗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신의 존재는 확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Nask, Ronald, Faith and Reason, Zondervan Pub. House Michigan. 1988.
- Craig, William Lane, Apologetics. Moody Press. Michigan. 1984.
- Plantingu Alvin, Faith and Rationality, Clniu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 Nask, Ronald, The Philosophy of Gorden Clark.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8.
- Charnak, Stephen, Existenae and Attributes of God. Baker Book House, Michigan. 1979.
- Thiessen, C. Henry. Lectures in Systemati Theology. Eerdmans Pub. Co. Michigan. 1979.
- Frame, John. M.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Phillipsburg 1987.
- Erichson, Millard, Christian theology. Baker Book House Michigan 1985.
- Berkhof, Hendrikus, Christian Faith, Eerdmans Pub. Col Michigan 1979.
- Lewis, Gorden and Demarest, Bruce. Zondervan Pub. Co. Michigan. 1990.
- Bavink, Herman, The Doctrine of God. Erdmans Pub. Co Michigan 1951.
- Hirschberger Johannes Geschichte der Philosophie. Freiburg : Herder, 1955.
- Kant Immanual,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 Felix Memer Verlage, 1971.
- Kant Immanual,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amburg : Felix Miner Verlage, 1974.
- Yandell, Keith Christianity and Philosophy Erdmans Pub. Co Michigan. 1984.

〈논문 참고〉

- 김성린, Garden Clark에 있어서 진리의 일의성 문제 교수논문집 제 9집 1981.
- 김성린, Kant에 있어서 이념의 실재성에 관한 연구. 교수논문집 제 10집